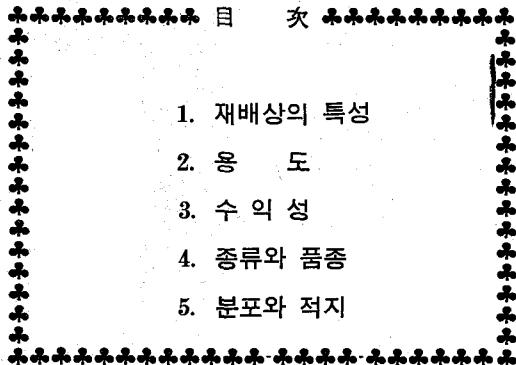


# 오동나무 재배



( II )

이 여 하  
<전국대학교 농과대학교수>

제수종을 우선으로 선정도록 하기로 한다.

## 오동나무 재배

특용수란 일반 산지식재에 의한 용재 생산에 대하여 각기 특수목적에 의한 임목재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용재생산은 그 생산된 용재가 대중적인 면에 사용되고 이러한 용재생산은 재배하기보다 일반 임업의 육성적인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용수란 용재면에서도 형질이 특이하여 특수목적에 사용됨은 물론이고 기타 열매 수피 꽃 잎등 수목의 각부분의 특성을 살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면으로 재배하여 수익하는 수목재배가 될 것이므로 농가나 기타 생산업의 부업으로서 또는 취미적인 생활을 하는데 편장될만한 재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업을 양계나 일반 농업에 두고 있으면서 주택지 부근의 공터나 유후지를 대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재배지 주위의 환경개선과 수익적인 면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한 정신휴양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 것이나 일차적으로 경

오동나무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단히 들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농가 부근의 비옥한 곳에 성장하여 수관이 크고 잎이 넓어 여름의 녹음으로서 좋고 방화수(防火樹)로서도 알려져 있다.

속성수로서 성장이 소나무보다 3~4배 빠를 뿐 아니라 재질이 특이하여 방습 방화성이 강하고 재목의 물리적 성질이 좋아 귀중가구재 등에 사용되고 국내생산량은 외국에 수출불을 힘입어 그의 재배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간에는 적지 선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집단재배를 시도한 일부 조림지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예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오동나무는 속성수이면서 그 재질이 특이한 수종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조림 10대 수종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같은 오동나무의 재배상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식재에 임해야 할 것이므로 특성을 위시하여 재배에 앞서 몇가지 지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재배상의 특성

① 내음성이 아주 약한 양수(陽樹)이므로 측방 또는 상방에서 양광을 차단하는 것이 있으면 성장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재지의 방향과 경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방향은 일반적으로 동남향을 우선으로 하고 남향에 식재할 것이며 경사가 급한 것보다는 완경사지가 좋다.

② 어느 수종보다도 비옥한 곳이어야 한다.

속성수는 일반적으로 많은 양료를 필요로 하지만 오동나무는 어느 수종보다도 유기질 양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충분한 기비와 유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차별 시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양토에 알맞으며 점토질 토양에서는 판매수가 되지 않아 천근성이 오동나무의 뿌리성장이 불량하여 바람에 해를 많이 받는다.

③ 병충해에 특히 약하다.

오동나무는 성장이 속성인 대신 재질이 유연하여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특히 약하다.

유모시의 입고병과 탄저병은 실생요 양성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병이고 각종 총해에도 약하다.

④ 맹아력(萌芽力)이 강한 수종이다.

오동나무의 맹아력은 극히 왕성하여 다른 부류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이며 그 발아력은 뿌리목부가 가장 왕성하다. 초기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3차 대절하여 품질좋은 재목을 수확하는 것이다.

## 2. 용도

오동나무 재배는 고급용재 생산을 위하여 재배하는 것이다.

재목은 재질이 균일하고 십재와 변재의 구별이 없으며 특히 제목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가벼운 것이 특징이기도 하며 견인력이 강하고 뒤틀거리거나 트는 일이 없다.

내습성과 내화성이 강하여 천정판 난간 창문, 장지문, 병풍 등의 옥대 건축재에 쓸 뿐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와 광택 및 가공하기 용이한 점등의 특성이 있어서 책상, 완구, 의장 각종 조각품 합판재 금고의 내부재 및 실내 내장재 등의 귀중한 부분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용수의 대표수종이라 할 수 있다.

## 3. 수익성

오동나무는 재질이 우수하고 성장이 빠르고 왕성하여 다른 나무보다 수확기도 빠르다.

속성수는 어느 수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오동나무와 같이 적지에 대한 영향이 예민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재배관리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수종도 많지 않은 듯 싶다.

따라서 비옥한 곳에 ·식재되고 비배관리와 병충해구제 및 무육작업이 재대로 실시된 곳의 오동나무라면 10년생으로서 흥고직경 30cm 전후로 대경목에 이르며 단목 임목재적으로서 100재(才) 전후의 재적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집단재배로 벌기에 도달한 오동나무 단지는 아직 없으나 이웃 일본의 경우 집약재배한지 오래고 따라서 오동나무의 영급별 임목재적에 수치가 지위별로 조사된 것이 있어 우리나라와 임지조건이 비슷하여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오동나무의 재목은 지하고(가지밑의 원줄기 높이) 밑의 높이에 따라 재적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거에는 지하고 9자 또는 12자의 원목재 적을 계산하였다.

현재는 원목 뿐 아니라 가지부분도 전부 이용되고 있으므로 훨씬 이용면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집약적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750본·식재하여 12년생으로서 지위가 최상일 때 약 60,000재를 생산하므로 그 수익면에서 볼 때 어느 생산업보다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익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생산기간 20년으로 할 때 ha당 조수입은 7,740천원, 생산비 1,713천원 따라서 순수익은 6,027천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ha당 750본 식재지 수확예정표 (1급지)

수 령	8	10	12	14	16	18	20
임 목 본 수	700	380	380	380	190	190	190
평균 흉고직경 (cm)	24	28	34	40	48	52	56
지 하 고 (m)	4	4.5	4.5	4.5	5	5	5
단 목 재 적 ( $m^3$ )	0.18	0.25	0.54	0.77	1.15	1.34	1.60
전 재 적 ( $m^3$ )	126	95	205.2	292.6	218.5	254.6	304
비 고	(일본의 경우)	간벌재적 + 주벌재적 = 542.1 $m^3$					

ha당 1,300본 식재지의 수확 예정표(2급지)

수 령	8	10	12	14	16	18	20
임 목 본 수	660	660	660	330	330	330	330
평균 흉고직경 (cm)	22	24	28	34	40	44	48
지 하 고 (m)	4	4	4	4.5	4.5	4.5	4.5
단 목 재 적 ( $m^3$ )	0.15	0.18	0.25	0.54	0.77	0.95	1.15
전 재 적 ( $m^3$ )	99.5	118.8	165.0	178.2	254.1	313.5	379.5
비 고		간벌재적 + 주벌재적 = 537.9 $m^3$					

따라서 연평균 순수익은 301천원이 되는 셈이다.

#### 4. 종류와 품종

오동나무는 오동나무과에 속하여 잎이 광엽을 하고 있는 낙엽활엽수다.

특히 성장이 왕성하여 10~20년생으로서 흉고직경이 30cm 전후가 되고 수고는 20m에 달하기도 하는 교목이다.

잎은 다른 나무에 비하여 특히 커서 30c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어 여름의 녹음에 적합하고 방화수로도 집주위에 식재되고 있다.

꽃은 가지 끝에 달리며 5월 상 중순경 잎이 피기전에 종모양의 꽃을 피운다.

과실은 삭과를 끝이 뾰족하며 그 속에는 작은 종자가 수 천개 들어 있다.

##### (1) 오동 (*Paulownia coreana* Uyeki)

우리나라 재래종으로 잎 뒷면에 짙은 갈색 털이 밀생되어 있다.

내한성이 특히 강하여 이북 평안도 지역에 도 분포되고 있으며 성장은 참오동만 못하다.

꽃은 5월 상중경 백색 또는 자색으로 피며 종모양을 하고 과실은 10월에 성숙한다.

##### (2) 참오동 (*Paulownia fomentosa* steudel)

일본 오동이라고도 하며 일본 대생이고 일본 뒷면에는 흰털이 나 있으며 5월 상 중순경에 자색 또는 백색의 꽃을 피운다.

참오동은 수간이 짧은데 대하여 재질이 치밀하고 무늬가 아름답고 광채등이 어느 오동 보다도 우수하다.

##### (3) 중국오동 (*Paulownia Farlunei* Hemsl.)

수간이 참오동에 비하여 길고 잎이 작으나 잎 뒷면의 흰털을 마찬가지이다.

꽃은 다른 오동에 비하여 약간 좁고 긴 종 모양을 하고 있으며 과실은 참오동보다 크다.

재질은 별로 손색이 없으나 무늬와 광채는 참오동만 못하다.

##### (4) 대만오동 (*Paulownia Kawakami Ito*)

중국의 대만이 원산이며 난·열대산이나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일부 도입되어 남부지방에 시식되고 있다 한다.

오동나무중 성장이 가장 빨라 참오동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이 강하여 다른 종류에 비하여 재배가 용이 하며 외부형태는 다른 오동과 비슷하나 잎이 호생이며 잎 뒷면에 털

이 있으며 꽃은 백색이나 자색반점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오동나무는 몇 가지 특징에 따라 품종  
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재목의 색깔에 따라 구  
분하는 것을 들어 보면 자동(紫桐), 백동(白  
桐), 적동(赤桐), 청동(青桐)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자동은 재질이 가장 치밀하고 광  
채가 좋아서 특히 우수하며 재목의 단면에 나  
타나는 연륜은 구별이 뚜렷하여 아름답다.

또한 개화시 꽃의 색깔도 백색 또는 자색으  
로 나타내고 재목의 성질에 따라 견인동(堅韌  
桐) 유연동(柔軟桐) 등으로도 분류하기도 하  
며 모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5. 분포와 재배적지

종류에 따라서는 온대 북부에서도 생육하며  
주로 온대 북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난대 또는 열대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어 그 범  
위는 넓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류로는 참오  
동의 일부와 재래종인 오동나무가 중부지역을  
중심하여 남부자방까지 폭넓게 퍼져 있다.

수직적으로는 표고 50~400m에 이른다고  
하나 가급적 높지 않은 곳일수록 성장이 좋다.

특히 대만오동은 영하 7°C 이하의 곳에서  
는 생육하기 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동나무의 재배적지라하면 나무의 생육적  
인 특성에 따라 토질을 중심하여 환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하는데 몇 가지  
중요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오동나무는 수성이 강한 양수이므로 남

향 또는 동남향의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선  
택하여야 한다.

즉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곳을 선정토록  
한다.

그러나 서남향 또는 서향에는 절대로 식재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방향은 햇볕이 좋은 장소이  
긴 하지만 오동나무의 수피는 그렇게 두터운  
것이 못되는데 한 여름의 강한 햇볕에 의하여  
연한 수피가 할렬 즉 피소(皮燒) 현상을 일으  
켜 나무성장을 위축 저해시킬 뿐아니라 재목  
의 질을 크게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② 오동나무는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어느  
수종보다도 높아서 비옥한 토질을 요구한다.

비옥토가 다소 떨어지는 토양일 때에는 토  
양개선을 위하여 시비가 가능한 곳을 선택토  
록 할 것이다.

따라서 지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서 판매  
수가 잘되는 비옥한 사질양토가 적지이다.

특히 배수가 불량하고 점질토양에 있어서는  
근계발육이 불량하여 임목의 성장이 나빠질  
뿐아니라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설  
할 경우 말라죽고 마는 수가 있다.

오동나무는 수관(樹冠)의 폭이 어느 수종보  
다도 커서 기계적으로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야 되는데 대하여 천근성수종(淺根性樹  
種)이기 때문에 뿌리의 발육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바람에 넘어지거나 가뭄이나 장기  
강우의 외적조건에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에  
판매수를 잘 할 수 있는 곳이던지 이를 개량  
할 수 있는 약간 경사지가 좋다.

## ☆ 독자원고 모집 ☆

월간양계 편집부에서는 애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  
다.

- 양계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 새로운 사양방법 혹은 기술
- 최신 해외논문
- 양계경영 체험수기
- 기타

원고는 매달 15일까지 본사 편집부로 보내

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  
료를 지급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여바랍니다.

- 1)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 주십시오.
- 2) 고유명사들은 똑바로 표시해주세요.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시 종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전화 22-2571-2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